
2019년 제7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2019. 6.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최근 청탁성 전화 및 문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공표하고 심의에 반영함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19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 일 시: 2019. 5. 30.(목) 14:00~18:00
-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 참 석: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총 16건 18작품(조각 17작품, 미디어아트 1작품)
- ◆ 결 과: 승인 11작품, 부결 7작품

《심의작품 도서 3D 그래픽 관련 논의》

위원장: 작품 심의에 앞서 논의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위원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해주시는 사항입니다. 도서 내부에 있는 미술작품과 건축물 시각자료가 조형설계회사를 통해 들어오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완성도도 떨어집니다. 실제 작품과 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자료를 만드느라 몇백만 원씩 비용에 포함이 되니까 일반인들이나 작가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3D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작가가 스스로 스케치하여 도서에 포함해도 괜찮다는 조건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3D 그래픽으로 표현할지 안할지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OOO 위원: 3D 그래픽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하면 대부분 3D로 시각자료를 만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과도한 컴퓨터 작업보다는 간단한 스케치를 권장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주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OOO 위원: '과다한 3D 컴퓨터 그래픽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의 문구는 어떨까요?

OOO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현재 채점표 상의 '건축물과의 조화'라는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채점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D 그래픽을 도서에 포함하지 마시오'라고 했을 때 그걸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는 지금 바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3D 렌더링이나 캐드를 하지 않았을 때 심의위원인 저희가 심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 번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3D를 하지 않으면서 심의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방식을 구축해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OOO 위원: 건축물 조감도는 무조건 첨부하게 하고, 사실 이렇게 바꾸려는 취지가 작가들이나 일반인들이 특정회사를 거치지 않고 편하게 작품을 내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작가나 학생분들 보면 손작업보다 캐드가 더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D그래픽 구현방법과 공존할 수 있으면서, 작가들이 미술작품 심의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 같아요

위원장: 비용 상으로 가장 비중이 큰 3D 맥스, 마야, 라이노 같은 이런 부분의 사용은 이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업체의 하나의 루틴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반 서양화나 조각을 하시는 분들이 캐드를 배우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취지는 보다 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고, 심의도서 제작 비용을 줄여서 문턱을 좀 낮추자는 것이고 다들 같은 뜻이니까 의견을 꾸준히 모아서 신중히 생각해보시죠.

OOO 위원: 공모나 심의를 경험했던 작가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의견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OO 위원: 추상적으로 제시하기보다 타입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제시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세 가지 방법으로 낼 수 있다.

3D로 해도되고, 포토샵 합성을 해도 되고.. 이런 식의 구체성을 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OOO 위원: 예를 들어, 제출할 도서의 조감도 조건에(모형사진, 스케치, CG, 포토샵 등) 이런 식으로 예시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선택지구나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OOO 위원: 건축 공모전 같은 경우는 3D렌더링 없이 도면만 가지고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지만, 미술작품 조형물 같은 경우는 설계도면만 가지고 평가가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건축과는 달리 조형물은 시각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제작 방법을 사례1, 사례2, 사례3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병폐가 '3D 그래픽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마인드가 보편화 되어있고, 이런 마인드를 하나의 루틴처럼 중개업체가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가들 중에서도 직접 3D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로서는 참여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 환경과의 조화는 건축회사에서 받으면 되니까, 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상상하면서 평가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OOO 위원: 미술작품 설치 장소가 주어지면 애초에 건축 시공사에서 조감도라든지 건축물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작가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직접 사용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OOO 위원: 그런 방식도 좋고, 건물 앞에 점선으로 표시를 해줘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선 표시하고 옆에 미술작품 모형을 그림으로 넣어주시면 하면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원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매 회의 때마다 신중하게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도서 관련 논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다음 심의 때 자료를 준비해주셔서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안건 심의》

위원장: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별 개별채점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별 자료검토 및 토론 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사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방식을 제시하실 위원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 1번 안건: 해오름

- 변경 전과 별로 다른 점이 느껴지지 않고, 작가의 조형언어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아쉬움
- 장소적 맥락 이해가 아쉽고, 장식성 좀 과하게 느껴짐
- 작품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듯함
- 작품성, 예술성이 아쉽고 안타까움
- 요소들의 결합에서 조화가 느껴지지 않음
- 예술성이 아쉬운 대중 친화적 장식물 같은 느낌
- 조각으로서의 상징성을 좀 더 갖추었으면 좋겠음
- 현란함이 강하고, 참신하지 않음
- 형태 요소와 재료가 너무 산만하여 환경 조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듯함

□ 2번 안건: 하늘선

-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무난해짐
-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고 적절한 변화를 준 작품
- 너저분한 공들이 없어져서 편안한 느낌을 받음
- 표현 기법이 현대적이지는 않은 느낌
- 복잡한 구조, 접합방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색과 느낌은 나쁘지 않으나, 장식적 요소가 강함
- 몸체와 몸체에 달린 구가 부조화, 조각적 설득력 부족
- 주변에 붙어 있는 구는 없는 것이 더 나을 듯함

□ 3번 안건: A sweet illusion

- 장소와 잘 어울리진 않는 것 같음
- 작가 고유의 작품성과 조형어법이 느껴짐
- 조형어법과 표현방법에서 작가의 개성을 느낄 수 있음
- 물에 비친다는 개념이 개성 있는 조형미로 표현됨
- 과거 심의 작품과 거의 동일 작품, 기본 콘셉트는 개연성 있으나, 설명과 다소 이질감 있음
- 기시감이 높지만 무난한 작품

□ 4번 안건: 아름다운 꿈

- 정감 있고 친근한 모티프의 대중 친화적 작품이지만 예술성과 작가적 개성은 상대적으로 부족
- 제목과 형태의 연결 불일치
- 작품 선택 의도를 모르겠음
- 독창성, 예술성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음
- 장소성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며 조형적으로도 참신함을 느끼기 어려움
- 유사작품 존재하고, 조형적인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음
- 형태와 색감이 지나치게 보편적임
- 사과와 새가 어떻게 아름다움과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가 개연성이 아쉬움
- 단조롭고 반복적인 형태가 특별한 구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

□ 5번 안건: 기운(氣韻)

- 단순한 콘셉트의 명료한 작품, 공간에 부담스럽지 않으나 안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작품 콘셉트도 작가 본연의 콘셉트인 것 같고, 시원시원하게 잘 표현된 듯
- 시원스러운 수직선을 구형으로 형상, 주변과 잘 어울림
- 장소와 잘 어울린다고 볼 수는 없음
- 장소성과 무관하며 안전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색 유지가 관건일 듯
- 일반적 형태에 붉고 푸른 원조적 대조가 인상적임
- 작품의 의도와 조형이 이해되지 않음
-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지나치게 기념적으로 비쳐질 수 있음

□ 6-1번 안건: Hidden Edge #11

- 무난하다
- 이전 작품보다 훨씬 좋음
- 작가 작품의 연속선 상에서 무난하고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함
- 작품의 수준이 높게 느껴짐
- 건축물과 잘 어울림
- 작가의 평소 작품의 연장선상의 맥이 닿아 있음
- 장식적으로 명료한 요소가 발랄한 색상으로 경쾌하게 표현됨
- 작가의 전작과의 일관성, 조형적 밀도가 좋음

□ 6-2번 안건: 배송된 하늘

- 작품성 있고 무난함
- 개념이 있는 작가이고 수준이 높은 작품
- 볼륨적 요소를 착시된 형태로 미디어와 매칭하여 명료한 구조로 표현
- 공간에서 재미있게 보일 것으로 생각됨
- 화면이 작은 느낌은 있으나, 산만하지 않음
- 다국적 이동인구가 많은 인사동에 배송이라는 개념이 잘 어울림
- 주제와 작품의 형태가 매우 직설적으로 조형 언어가 단순함
- 작가가 의도하는 소리와 영상, 텍스트를 통한 명상적 공간의 구현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듦

□ 7번 안건: 염원(念願)

- 표현 기법이 현대적이지 않음
- 보완이 계속될수록 조형적으로 아쉬워짐
- 매체에 대한 이해와 예술성이 아쉬움
- 장소성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며, 조형적으로 평이함
- 연관성 없는 요소들을 무작위적으로 결합하여 작품성을 느끼기 어려움
- 야외 조형물로서 상징성과 조각적 완결성이 부족
- 크기가 작아 임팩트 부족하며 일반적인 조형성
- 형태가 너무 산만한 느낌이 들고, 형태감 재고가 필요

□ 8번 안건: Beginning of Eclipse(이클립스의 시작)

- 작가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테크닉을 잘 담아낸 작품
-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이 작품 자체만 보면 매력적이라고 느끼기 어려움
- 기반 없이 잔디 위에 바로 놓이는 것이 나올 듯함
- 거칠지만 색다른 조형성, 이전 작품보다 훨씬 발전된 외형
- 돌의 견고함에 파동을 줌으로써 무게감과 경쾌함을 동시에 주고 좋음
- 작품 제목과 형태가 연결되지 않음
- 작가의 평소 작품에 비해 장식성이 짙어진 평범한 조형물
- 좌대와 걸도는 메인모티프

- 수석(水石)을 상기시킴

□ 9번 안건: 생명의 정원

- 단순성이 명료한 작품
- 리듬이 느껴지는 조형성이 좋음
- '존재의 명료함'에 점수를 주고싶은 작품
- 세련된 점은 있으나 거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단순하고 선명한 형태는 좋으나 낮익은 조형
- 건축공간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개념과 작품 간 괴리가 당황스럽지만 무난함
- 형태와 패턴의 반복에서 오는 통일감은 있으나, 비슷한 메스에서 오는 지루함
- 작가의 평소 작품과는 괴리된,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작품
- 일반적인 조형물에서 느끼는 익숙한 형태가 아닌 신선함이 느껴지는 작품
- 필요 이상의 장식성으로 눈에 띄려고 애쓴 작품이 아니고 명료함이 느껴지는 작품

□ 10번 안건: 영원한 빛 - 꿈

- 훨씬 발전했으나 조명에 드러나는 콘텐츠가 일반적이라고 사료됨
-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견고한 이미지와 섬세함이 잘 구현됨
- 과도한 조명계획, 유지보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작품 표면에 장식된 요소들이 작품을 가볍고 진지함이 부족한 장식 조형물로 만드는 경향
- 조형 작품이라기보다는 상징조형물에 가까움
- 중간 중간에 들어간 문양 그림이 전체 조형과 어울리지 않음
- 이전 작품보다는 좋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는 낮에 작품성을 잘 살릴 수 있을지 의문
- 회화적 요소, 타공, 조명, 형태 모든 것이 일반적인 느낌이 들어, 예술성과 독창성을 느끼기에 아쉬움이 많음

□ **11번 안건: VIEW 1_마곡의 풍경·초록 숲 VIEW2_마곡의풍경·붉은숲 VIEW3_마곡의풍경·도시**

- 무난하게 느껴짐
- 벽면과 잘 어울리고 공간 해석도 잘 된 좋은 작품
- 미니멀한 요소의 반복에서 오는 작품의 밀도, 심플하고 명료한 콘셉트
- 공간 해석이 들어간 조형성이 장소와 잘 어울림
- 마곡의 풍광을 조각으로 형상화 했다는 내러티브는 나쁘지 않음
- 작가의 예술세계를 공공미술에서도 지속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임

□ **12번 안건: 플라토닉 솔리드(Platonic solid)**

- 건물의 외양과 조화되어 보임
- 도장의 유지, 보수 문제가 있을 듯함
- 작품 표면의 패턴이 작품의 완성도를 해치는 느낌이 있음
- 좌대와 작품이 상호 조화롭지 못 함
- 개성 있는 공공조각의 형상을 보여줌
- 작품가격 과다, 작품가를 맞추다보니 필요 이상으로 웅장해짐
- 조각에서 구, 기단 그리고 바닥으로 이어지는 조형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움
- 작가의 진지함이 느껴지는 작품
- 작품 밑에 반짝이는 구가 너무 반짝거리려 작품 감상을 방해하는 느낌

□ **13-1번 안건: 인간의 숲**

- 이야기가 있는 흥미로운 조형성이 있으나 많은 구 형태가 다소 산만해 보임
- 표현기법이 새롭지 않고 진부한 느낌이 듦
- 작가 고유의 성향이 반영되지 못하고, 단조롭고 평이함
- 조형적으로 산만하고, 너무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음
- 단순화된 라인의 형상과 반복된 원의 장식이 작품의 작품성과 예술성을 떨어트림
- 산만한 조형성이 작가의 의도를 알기 힘들게 만들
- 두 작품이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각각의 작품 또한 주제와 형식이 불일치
- 인간 형태와 구형이 조화롭지 않아 보임

□ 13-2번 안건: 꿈을 향해 뛰어라!

- 유머러스한 작품
- 작가의 이전 작품보다는 이 작품이 좋음
- 장소적 맥락 부족으로 주변과 조화롭지 못 함
- 두 가지 모티프를 각기 유관하지 않게 조형적으로 표현하여, 자연스럽게 못한 요소들의 동거를 만듦
- 과장된 동물의 형상과 반원이 부조화
- 두 작품이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각각의 작품 또한 주제와 형식이 불일치

□ 14번 안건: 어린왕자가 꿈꾸는 어른

- 잘 알려진 동화적 모티프를 이용한 정감 있는 표현
- 아파트 공간에 흥미로운 조형성이 어울림
- 아슬아슬한 조형미와 동화적 친근함이 나쁘지 않음
- 작품성이나 예술성이 뛰어나진 않으나, 대중친화적임
- 제목과 작품의 형태가 연결되지 않음
- 작품 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듯함
- 3D 그래픽스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임
- 구조적으로 프레임이 여유가 없고, 구현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음
- 형태적으로 불안정해보이고, 아이들이 사다리로 올라갈 경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음
- 아래에서 위의 인물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음
- 작가의 이전 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 어린왕자라는 소재 선택이 어색함

□ 15번 안건: 태초의 잔상 019-513 (AFTERIMAGE019-513)

- 작가의 개성 뚜렷한 공예적 조각 작품
- 협소한 장소를 잘 고려했는지는 의문이 듦
- 완성도 높고 예술성 높은 작품
- 조각적 완성도는 높으나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다소 부족
- 색다른 상상력 자극

- 외부 공간에 놓기에 조금 작은 듯 보이지만 안정감은 있음
- 공간과 무리 없이 어울림
- 제목과 작품의 형태에서 개연성을 느끼기 어려움

□ **16번 안건: 꽃그림자**

- 위치변경이 적합함
- 이전 보다 더 좋음
- 관람을 위한 공간 확보는 필요할 듯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발표>

오늘 18개의 작품 중 2, 3, 5, 6-1,2, 8, 9, 11, 12, 15, 16번 안건이 승인되고, 나머지는 부결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9년 제7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